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2 / 1



향기로운 삶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꽃 향기처럼 들려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이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철이 바뀔 때마다 꽃과 잎과 열매를, 바람이 숲을 스
 치고 지나가듯이 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서도
 어느새 꽃이 피고 잎이 펼쳐지고 열매가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안과 밖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면 모든 현상을
 곧 우리 내면의 그림자다.

- 법정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 71쪽

어슴푸레 푸르른 새벽하늘에 매일
 다른 모습으로 내게 커다란 감동과
 웃음 주며 하얀 꿈 실어 주던 달, 그리고
 그 곁에서 유난히도 반짝이던 샛별 하나와
 어둠을 이고 서있던 산과 나무들을 바라보며
 출근하던 나의 일상이 곧 행복이 아니었나 싶다.
 표지 그림 및 설명 / 이연 이유경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기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2 / 1

다시 읽는 산방한담/법정	4	날마다 새날을
특별법문/탁운	7	길상사 14주년 법문
한국의 탑/박희준	10	청량사지(淸涼寺址) 쌍탑(雙塔)
이런 생각 한번 어때요/박창근	12	다른 생명체의 고통 줄이기 위해 채식해야
시심청심/지현	16	부처님 품
속담 에세이/박연구	17	가난이 장사다
사색의 뜰/유승백	18	멀리서 온 편지
/김영채	19	겨울 산지락에서
차 내음 가득한 시간	22	설날 차례상에 올렸던 민족의 차, 백산차
산골만화/정태경	24	산골패션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25	서울모임
	27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모임
여기는 길상사	29	1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2년 1월 발행 / 통권 203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이상조 / 편집인 홍정근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천 /
 인쇄처 능인전산품 /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17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날마다 새날을

法頂 (스님)

오늘은 바람이 몹시 분다. 까칠
까칠한 삭풍(朔風)이 혼이 빠
져버린 가랑잎을 이리 몰아가고 저
리 몰라간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
지 집 뒤 굴참나무에서 푹푹쪼던
딱따구리 소리도 오늘은 들리지 않
는다. 햇볕이 밝은 창 아래 놓아둔
이끼 돌은 돌이 한결 새파랗다.

작년 겨울, 방안에 생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좀 짝짝하다는 느낌
이 들었다. 싱싱한 생명의 빛깔인 초
록이 차단된 겨울철 산방(山房)은 삭
막했다. 이끼 돌은 돌이라도 하나 주
워다 놓을까 해서 개울가로 내려갔
다. 한 곳에 이르니 반쯤 물에 잠긴
돌이 온몸에 응단 같은 파란 이끼를
쓰고 다소곳이 있었다. 내 주먹만한
크기인데, 하얀 수반에 담아 놓으니
방안에 운치가 감돌았다. 언뜻 보면
마치 토끼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다.

이따금 물을 갈아주면서 한겨울을
우리는 사이 좋게 지냈다. 내가 건내
는 말을 돌은 잠잠히 듣고만 있었고,
그의 짐목을 나는 귓속의 귀로 받아
들었다. 우리는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방해됨이 없이 각자의 할 일
을 하면서 한 방에서 살았다. 골짜기
에 얼음이 풀리고 매화가 지 끝에 꽃
망울이 부풀어 오르는 초봄, 우리는
'기약 있는' 작별을 했다. 겨울철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때 그 자리에
갓다 두었다.

작년 겨울에도 그 돌은 나와 함께
우리 방에서 지냈었다. 생명의 신비
라더니, 작년에는 뜻밖에도 그 돌에
석창포(石菖蒲)가 서너 줄기 돌아 있
었다. 이제는 갈 데 없는 귀가 솟은
토끼였다. 그저께 큰절에 내려가 화
봉 스님 기재(忌齋)를 지내고 올라오
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나서 돌을 데
리러 그 개울가로 갔었다.

지난여름 장마로 흘러내린 토사에
혹시 묻히지나 않았을까 걱정을 하
면서 두리번거렸는데, 그 돌은 저만
치서 나를 반겨 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일 년 사이에 석창포는 세
포기로 갈라져 열여섯 줄기나 무성
하게 잘 있었다. 삶은 정말 놀라운
신비다.

인도의 세계적인 스승 지두 크리
슈나무르티의 표현을 본다면, 삶은
놀라움 만큼 깊고 넓은 그 무엇이다.
하나의 위대한 신비이고 우리들의
생명이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거대
한 나라다.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에
그친다면 우리는 삶 그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실로 삶은 놀라움이요, 신비다.
인생만이 삶이 아니라 새와 꽃들, 나
무와 강물, 별과 바람, 흙과 돌, 이
모두가 삶이다. 우주 전체의 조화가
곧 삶이요, 생명의 신비다. 삶은 참
으로 기막히게 아름다운 것. 누가 이
런 삶을 가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어떤 제도가 이 생명의 신비를 억압
할 수 있단 말인가.

“젊어 있을 동안 삶을 알기 시작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황폐한 내면

을 지닌 채 늙어갈 것이다. 밖으로는
돈을 가지고 미끈한 차를 타면서 뽐
낼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무디고 텅
빈 사람이 될 것이다.”

역시 크리슈나무르티의 말.

한 겨울 우리 ‘토끼’는 이따금 갈
아주는 샘물과 숲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창호로 비쳐드는 햇살을 먹
고 살아간다. 그리고 내 눈길에서 삶
의 은밀한 뜻을 가꾼다. 우리는 서로
가 말없이 주고받는 눈길을 통해 존
재의 잔잔한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해가 또 늙었듯이 기울고 있다.
몇 해 전 선달 그믐날의 그 체험이
되살아난다. 그날의 일과를 마치고
자리에 누워 눈을 붙이려고 하다가,
문득 ‘내 나이가 올해 몇이더라?’하
는 생각이 미쳤다. 나이를 세거나 의
식할 일이 없는 처지여서 새삼스런
물음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먹은
나이를 헤아리다가, ‘아니, 그럼 내일
모레면 50이 되게? 머지않아 60, 70?’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부
질없이 살아버린 날들이 앞으로 살
아갈 날보다 훨씬 많은 걸 뒤늦게
알고 내 생이 새삼스레 허무감으로
휘청거리려고 했다.

길상사 14주년 법문

德 耘 (스님)

그러나 이내 돌이켜지는 생각. 그 래 사람이 만약 1백년, 2백년을 산다 고 해서 좋을 게 뭐가.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천해질 것인가. 수목은 오래될수록 늙름하고 기 품이 있지만, 사람은 살 만큼 살면 현 수레와 같이 빠그덕빠그덕 고장 이 많고 주책을 떨다가 추해지게 마 련이다.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으면 생애 미련을 두지 말라는 소식일 것 이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지 는 것도 지금까지 살면서 볼 것 못 볼 것 많이 보았고, 들을 소리 못 들 을 소리 많이 들었으니, 늙어서는 시 시한 것은 그만두고 꼭 필요한 것만 을 보고 들으라는 뜻일 수도 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직하면 억울하 고 서운할 테니까 조금씩 사그러져 가는 연습을 미리 해두라는 배려이 기도 할 것이다. 이 또한 생명의 질 서요, 조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 도 있고, 열 살도 못되어 안쓰럽게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채 20, 30세 안에 비명에 가는 사람도 무수히 있 다. 그리고 보면 나는 이 기구한 세 월에 반세기 가까이 살았으니 이제

죽는다 해도 억울한 것은 조금도 없 다. 문제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고, 자기 몫의 삶을 어 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이 미치자 조금 전의 그 아찔한 허무감은 이내 지워지고 말았다. 순 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인간답게, 내 자신답게 후회 없이 사는 일이 새로 운 과제로 다가섰다.

(중략)

고려 중기의 뛰어난 선사 진각 혜 심(眞覺 慧諶)은 정월 초하루 아침, 이렇게 말했다.

“어린이에게는 한 살이 보태지고 노인에게는 한 살이 줄어지면, 늙고 어림에 상관없는 이에게는 줄지도 않고 보태지지도 않을 것이다. 보태고 줄어짐이 있거나 말거나 모두 한쪽에 놓아버려라. 놓아버린 뒤에는 어떤가?”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는 살아있는 용이 어찌 썩은 물에 잠겨 있을 것인가. 해를 쫓고 바람을 따르는 용맹스런 말이 어찌 마른 동백나무 밑에 엎드려 있을 것인가.

날마다 새날을 이루소서.

(1983)  - 산방한담 중에서

선가에 개구죽착開口卽錯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그르친다는 뜻입니다. 진리에 대해 입을 병긋이라도 하면 이미 진리와는 동떨어진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엄청난 양의 말을 뱉어 내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말 중에 정말로 이익의 이익이 되고 쓸 만한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진실로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말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차라리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분노의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네 몸에 돌아온다.”

이 말은 범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칠고 남을 험담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은 해야겠지만 쓸데없는 말이라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 쓸데없는 말로 넘치며 말의 공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행할 뿐입니다.

“부처님과 온갖 중생들은 오직 일심뿐이요. 다른 법이 없다. 이 마음은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푸르지도 누르지도 않고,

형상도 모습도 없고, 있고 없음에도 속하지 않고, 새것과 옛것에도 속하지 않고, 길고 짧고 크고 작음도 아니어서 온갖 한량과 이름과 자취와 상대를 초월하여 본체 그대로가 옳다. 생각을 움직이면 바로 어긋나니 마치 허공이 끊어 없어서 헤아릴 수 없는 것 같다. 오직 이 일심이 곧 부처이어서 부처와 중생은 조금도 차이가 없건만 중생들이 형상에 집착되어 밖으로 구하므로 더욱 잃을 뿐이니, 부처를 몰고 부처를 찾으며, 마음으로 마음을 잡으려 하면 이 겁이 다하여도 얻지 못하니 망상분별을 쉬면 부처가 저절로 나타난다. 이 일심이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요,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일심이니 중생일 때도 이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일 때도 이 마음이 늘지 않는다.”

이 내용은 경덕전 등록 제9권 ‘황벽 회운 선사 전심법요’에 나오는 내용인데 당시 상국 배휴가 황벽스님을 청하여 큰 선원을 짓고 선사께 청법하여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벽스님의 일심은 상대적 차별의 대립적 관념의 세계가 아니고 차별의 세계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세계를 말합니다. 이는 한 생각 움직이기 이전의 그대로의 온전한 세계로서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는 마음 밖에 따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잡으려는 그 마음만 쉬면 이 마음 그대로가 온전한 깨달음 자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늘은 길상사가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공덕주 김영한 보살님이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명 받아 당시 음식점이던 ‘대원각’을 시주할 생각을 내고, 스님께 10여 년을 청하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도량의 필요성을 느끼시어 조건 없는 보시라면 받겠다는 말씀에 김영한 보살님이 흔쾌히 응하여 이 도량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도량에 와서 당시 대원각이던 음식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이곳이 과연 부처님의 도량으로 뿌리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마다 고기냄새에 찌들어 그 악취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마다 향을 다발로 갖다 놓고 피우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동안 초대 주지 청학스님을 비롯한 많은 주지스님들이 거쳐 가면서 그 분들의 원력으로 하나하나 정비되고 또 불사를 일으켜 가꾸어서 오늘날의 ‘길상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길상사신도님들의 적극적인 불사 동참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길상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의 ‘길상사’가 있게 한 창건주 법정스님과 공덕주 김영한 보살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정스님께서 2006년 12월 창건 9주년 개원 법회 때 말씀하신 바를 한번 더 옮겨 봅니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이 도량에 몸담은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법답고 길상스런 도량을 이루게 하시고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는 신도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이제 공덕주 길상화 보살님도 가셨고 법정스님도 가셨습니다. 이제 이 ‘길상사’를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거듭나게 하는 건 여기 남아 있는 스님들과 신도 분들의 몫입니다.

모든 분들이 화합해서 법정스님의 염원에 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시는 스님들의 염원이 더해져 정말로 맑고 향기롭고 길상스런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다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12월 11일 법문을 요약하였습니다. >



청량사지(淸涼寺止) 쌍탑(雙塔)

박 희 준 (사찰생태연구소 생태연구팀장)

박희준님은 사찰생태문화지킴이로 활동 중이며, 우리 문화유적과 풀과 꽃, 나무 하나하나에 애정과 관심이 넘치는 분이며, 본모임의 숲기행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숲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을 사이에 두고 동측에는 동학사, 남서측에는 갑사가 있다. 이 두 절 사이에 삼불봉이 있고 바로 그 아래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그 앞에 오층석탑과 칠층석탑이 나란히 서있다. 이 두 탑이 청량사지淸涼寺止 쌍탑雙塔이다. 오누이탑 혹은 남매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신라시대 상원이라는 한 스님이 토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에 가시가 걸린 호랑이가 나타나 울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행 중이던 스님이 어려움에 처한 호랑이를 구해주자 며칠 뒤 호랑이는 스님에게 보답으로 처녀를 업어다 주었다. 이때가

겨울이라 눈으로 길이 막혀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못하는 형편이지만 상원스님은 처녀에게 접근도 하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였다. 이듬해 봄에 눈이 녹자 처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처녀의 아버지는 어차피 다른 곳으로 시집보낼 수도 없으니 스님에게 부부의 연은 맺어 주기를 원했다. 고심하던 상원스님은 그 처녀와 남매의 의를 맺고 계를 주어 비구니로서 불도에 힘쓰도록 하



계룡산 삼불봉 아래의 청량사지 쌍탑

였다. 이후 두 스님은 함께 수행정진하다가 한낱한시에 열반에 들었고 후인들이 이 쌍탑을 세워 두 스님의 사리를 수습하여 모셨다 한다.

두 탑 중 하나는 오층석탑으로, 1단의 기단(基壇)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얹은 석탑이고, 칠층석탑은 1단의 기단(基壇) 위에 7층의 탑신(塔身)을 세워 전체적으로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의 석탑이다.

오층석탑은 바닥돌과 그 위에 둔 기단의 아랫돌은 각 4장의 돌로 짚다. 특이한 점은 기단의 가운데 기둥을 별도의 돌로 끼워두었다는 것과 지붕돌을 받치고 있는 받침돌을 살펴보면 1·2·3층 지붕돌의 받침돌은 2단인데, 모두 따로 만들어 끼워넣었고, 4층은 받침돌이 1단이다. 1·2층의 몸돌과 달리 3·4·5층의 몸돌은 통돌로 만들어졌다. 기단은 각 면



남매탑(오누이탑)

의 네 모서리마다 기둥을 만 돌로 세운 점이 특이하다.

칠층석탑의 탑신을 살펴보면 다른 층과 달리 커다란 통돌인 1층 몸돌의 한 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감실을 새겼다. 지붕돌 밑면의 받침수는 1~6층이 2단이고 7층이 1단이나 2·3·4층은 후대에 만든 것이라 원형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2~7층까지 몸돌이 줄어드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다.

이 두 탑은 모두 고려 중기에 세워진 탑으로 추정되나 오층석탑은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보물 제224호)으로 이어지는 백제 석탑 양식을 따르고, 칠층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으로 이어지는 석탑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섬세하지 않고 기존의 탑들과는 달리 많은 부분이 과감하게 생략되었고, 조각기법이 일정하지 않은 것 등 고려 중기의 특징들이 보이는 탑으로 같은 시기에 한 절에서 각기 다른 형식의 탑을 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불교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탑들이다. 🌸



다른 생명체의 고통 줄이기 위해 채식해야

박창근 (가수)

박창근님은 10여년간 거리공연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며,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의미를 심도 있게 노래로 짓고 부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 대사회는 문명사회이며 정보 사회라고 한다. 또한 과학사회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열면 무수한 상식과 정보에 관한 지식들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다.

소위 '설탕' 하나를 놓고도 수백가지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각자의 논리가 있기 마련이며 또 그것들은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마치 사회 속의 구조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또 섞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이성을 적잖이 뒤 흔들어 놓는다.

굳이 필자의 주장을 말해보라고 하면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얻는 것이지만 정제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영양분을 잃어버리는 껍데기! 즉

얼마의 탄수화물만 남은 보잘것없는 식품.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열량의 대륙침략의 산물! 서양 역사 속에서의 부와 재력의 과시'와 같은 여러 가지의 긍정적이지 못한 답변을 내어놓을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적당한 섭취를 권장하는 쪽, 그리고 설탕 나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잘 이용하자는 이론도 상당수이다. 아니, 이 후자의 주장은 거의 지금까지 '육식'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줄곧 인간사회에 절대 떨 수 없는 음식문화라는 주장과 함께 대세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시대이건 먼저 자리 잡았던 가치를 부정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듯하다.

그렇게 증명되지 않고 오로지 예측과 습관 그리고 지배시스템에 의해 맞춰져온 가치들(즉 '지구는 평평하다'와 같은)과 당당히 맞서 싸우고, 또 그러한 허점투성이의 모순들에 대해 절대 비굴해지지 않고 스스로를 끈질기게 더 담금질 해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사고할 줄 아는, 자유로운 의식을 가질 줄 아는 인간이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책무가 아닐까 한다.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한 정보들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스스로 가지게 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또 다른 더 다양하고 복잡한 논리들을 생산해 낸다. 그것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우리를 덮치게 되면, 어느 즈음에 우리는 틀린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해 내고자 하는 관심을 기울이기 이전에 짜증이 날 것이고 머리가 아파오면서 급기야 난 모르겠다 식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린다.

지금 내가 쓰는 이러한 글 또한 그 홍수의 한 가닥을 장식하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또다시 사람들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드는 다분히 그저 홍수와 같은 정보로만 보여지고 말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 추상적인 필자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하는 많은 것들은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행여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기 위한 욕심을 서로 경쟁하고 탐하게 되지는 않을지. 이러한 것들은 필자를 참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와 함께 과연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불어 사는 삶, 땅을 되살리고 지구를 숨 쉬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인간의 삶, 진정한 해방, 아름다운 세상은 가능이나 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이 토로한 것처럼 그 자신 스스로는 인간 모두가 채식주의를 실현하게 되길 바라지만 그것은 결국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가 음반에 발표했던 <귀기울여보게>의 원 가사는 단지 중국고대 문헌의 글귀라고 떠도는 소문 이외에는 구체적인 출처를 알기 어려운데 그 가사의 내용을 인용해본다.

“수많은 세월 동안 냄비 속의 국은 미움과 분노를 끓이고 있네. 그건 멈춰지기 어려워라 이 세상에 군대와 사람들의 재앙이 왜 있는지. 그대 알고 싶거든 깊은 밤 도살장에서 들려오는 가여운 비명소리에 귀 기울여 보게...”

참으로 오래 전에 어느 누가 노래했던 글이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심각하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저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도 계실 것인데, 이 문헌의 떠도는 글귀 하나로 필자는 염세적이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었고 앞으로의 내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졌다.

가슴 한곳을 찌르듯 여전히 전율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그 글은 곧 내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셀 수도 없는 시간의 이전 세월의 어느 지구 한 켠에 똑같은 사람으로 고뇌하고 사고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지금의 어떤 한 무지한 인간에게로 그 ‘고독함’을 전해주었던 것이다. 결코 어떤 단백질, 지방 수치에 따른 건강의 이로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그저 홍수로 남발되는 정보의 쓰레기 더미 하나를 더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이렇게 늦은 새벽이 환하기만 하다. 이즈음에서 필자는 위안과 기쁨을 주었던 책 한 권을 서둘러 편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고 난 뒤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관계로 지내온 두 사람이 있다. 물론 그들은 제도로서의 결혼에 있어서도 자유로웠다. 지성인으로서 필자의 가슴에 너무도 툭툭히 새겨져 있는 이름 ‘스콧 니어링’과 이따금씩 외롭고 고독한 밤이면 그의 목소리에 잠을 청하고 싶은 ‘헬렌’이 그 둘이다. 이 둘은 부부였다.

유일하게 필자가 흠모하는 부부, 가장 지적이고 실천적이면서 자유로운 사랑을 했던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헬렌 니어링의 <Loving and Leaving the Good Life>(우리 말 번역 출간-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에서 헬렌 니어링 자신은 스무 살 연상의 그의 동

료이자 배우자인 스콧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의 경우 나는 완전한 남자를 찾았으며, 그 사람은 그보다는 덜한, 나로 만족했다.”

그들은 운명처럼 서로를 존경했으며 삶의 목표가 같았고 그랬기에 채식주의자일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정말 인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다.

“억압이 널리 퍼져 있는 이 세계에서, 당신은 노예상태를 없애는 일을 돕는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그 고통을 없애는 데 과거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천품이나 능력을 써야 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위의 글은 스콧이 연설 일정으로 집을 떠나있을 때 아내 헬렌에게 보낸 무수한 편지 글 중의 한 부분이다. 내가 고통을 원치 않듯 다른 이들, 더 나아가 다른 생명들에게 고통을 주길 원치 않는다고 하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가치실

현은 사실 간단명료하면서도 쉬운 일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해관계, 자본과 여러 가지 잡다한 망상에 얽혀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릴 수만 있다면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역사에 큰 영향을 남기고 간 많은 성인, 학자, 문화가, 예술가들도 그랬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같은 종으로서의 동물을 해치고 괴롭히지 않고도 더 건강하고 유익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소위 인간은 태생적 ‘잡식’이 가능한, 인간 삶에 뱉 수 없는 사냥과 가축사육, 그리고 성취감을 드높여주는 고기섭취를 하지 않고서도 적당히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이 순박한 물음에 관해 짧게 힘주어 말한다. “그렇다!”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감해주는 것으로도 내 삶이 즐거워질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



부처님 품

지 현 (스님)

누가 저 랑옥의 길에서 서성이는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분
 세상을 보호해 주시는 분
 이제 부처님 품 안으로 드소서!
 그대 불타는 욕망의 늪에서 헤매는가.
 그 곳 랑옥의 길보니 두렵네.
 여기 양 수레, 사슴 수레, 소 수레를 준비하고
 부처님께서 그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네.
 이제 부처님 품 안으로 안기소서!
 여기 씩인
 평안의 길 해탈의 길 자비의 길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네.
 부처님께서 그대 오길 기다리고 계시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총남 예산에서 수행 중인 지현스님(대전모임 회원)께서 편지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가난이 장사다

박 연구

무거운 짐은 혼자 일어나기 힘들다. 더욱이나 노인의 경우임에라.
 어느 날 한 늙은이가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면서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좀 밀어달라고 했다.
 지게 위에 얹힌 짐이 상당한 중량인지라 밀어주는 데도 힘이 들어 그
 젊은이는 “노인장, 힘이 장사입니다”하는 말로써 놀라움을 표한 것이 그
 만 늙은이를 화나게 만들었다.
 “에끼 이 사람, 내가 힘이 세다니. 가난이 장사라네.”
 누가 그 노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했을까.
 틀림없이 ‘가난’이란 자의 소행이다.
 적당한 가난은 우리들을 나태하지 않도록
 해주는 데 공헌하고 있지만,
 그것이 늙은 나이에 이르도록 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은
 절대로 환영할 바가 못 된다.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어서 손수 일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면서도 건강을 위해 아침 산책을 하는
 기분으로 노동을 한다는 이를 빼고는 말이다.



선인들이 경험에서 터득한 삶의 철학인 속담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범우사의 허락을 얻어 연재합니다.

출처 : 범우사 문고 속담 에세이 - 평범한 사람들의 철학

멀리서 온 편지

유 승 백 (회원)

너 무 멀리 살아서 그런지 아물 거리기만 할 뿐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날아오는 소책자가 고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어찌나 볼 적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생각날 적마다 또 뒤져보고 읽어보고…….

그간 살림 꾸리시는 여러분들 고생스러우심은 물론 다들 건강들 하시겠죠?

회원 여러분들도 같으시겠죠?

가지 못하면서 기대해주는 연결고리가 저로서는 회비 보내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잇기 전에 이 해가 다 저물기 전에 200달러를 보냅니다. 누가 말해주는 일도 아닌데 제가 혼자 나름대로 정하고 보내고, 그것이 저의 맑고 향기로운 마음이라 생각하니 그보다 더 기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를 엄습하는

무서운 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 팔순이 가까워지니 이 세상에 대한 여념인 것 같습니다. 생각은 청춘을 노래하지만 야위어가는 나를 에워싼 에너지는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르고, 하루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세타령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소책자에서 법정스님의 가르치심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라는 영원한 혼백을 잡아봅니다. 그것이 맑고 향기로운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영원하리라 믿으니 길상사의 맑고 향기로운 모습을 보일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까지 인연을 꼭 잡을 것입니다.

함께 이어져 사는 모든 회원들.

부디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소원하면서 몇 자 줄입니다. 

- 미국에서

겨울 산자락에서

김 영 채

매 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산에 오르면 마음도 차갑고 쓰리게 아파온다. 행하니 빈 가슴을 더 아프게 자극하는 것 같다. 그러나 흰 눈 덮인 겨울 산은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 눈 덮인 산은 포근한 안식처와 같다. 어릴 때 포근히 안긴 어머니 품속과 같은 겨울 산이다.

눈 쌓인 산에 오르다 보면 나무마다 눈꽃을 피워 찬 바람결에 흔들리는 자태를 드러낸다. 키 작은 나무는 옹은 눈꽃을 잔가지에 피워내고, 쪽 늘어진 소나무는 탐스런 눈꽃을 안고 반짝이는 웃음을 지어본다. 떡갈나무도 메마른 잎 사이로 작은 눈꽃을 자랑처럼 뽐낸다.

참나무 가지들은 쪽쪽 긴 팔 벌리듯 눈꽃을 높게 받치고 신화 속 거인처럼 웃는다. 나무마다 제 각각 뻗어가는 줄기가 엷힌 듯 하늘 쪽으

로 향해 자연스럽게 엮어가는 형상이 오묘한 조화처럼 보인다. 눈 덮인 바위들도 짧고, 넓은 눈꽃들을 다소곳이 안아 펼쳐 놓는다.

산등성이를 타고 이어지는 하얀 산들은 겨울 속에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겨울 산은 영혼의 안식을 찾아 헤매다 묵상하는 내 마음처럼 잠잠한 침묵 속에 잠겨들고, 겨우내 겨울잠 자는 생명들을 보듬어 안고 긴 동면의 시간을 포근히 감싸며 다가올 봄을 꿈 꾸어가고 있다.

묵상에 잠긴 겨울 산에는 가깝고, 먼 소리가 들려온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칼바람이 스쳐 갈 때마다 벌거벗은 나무들의 가지가 흔들린다. 바람은 크고 작은 나뭇가지에서, 산능선을 넘어 골짜기 계곡을 휘돌아가면서, 소리를 낸다. 현악기 소리처럼 현에서 울리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음이 울려온다. 비발디의 ‘겨울’이 섬세하게 가슴 메이도록 울려오는가 싶으면, 고즈넉이 울려오는 가야금, 거문고, 아쟁 소리로 나를 잔잔한 심연으로 이끌어 간다. 몸통이 크고 키 큰 소나무나 굴참나무, 자작나무에 기대어 귀를 가만히 대보면 목관악기의 소리가 울려온다. 긴 울림과 경쾌한 음들이 내 마음을 맑고 청명하게 눈 뜨게 한다. 또한 눈 덮인 겨울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악기에서 들을 수 없는 또 다른 바람, 눈, 나무, 바위, 계곡들의 소리가 하모니처럼 간간히 들려주는 순수한 자연의 소리들이 있다.

그 소리들은 겨울 산만이 간직한 자연의 소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들을 수 있는 순수한 영혼의 소리일 것이다. 이런 소리들을 듣고 싶어서 눈 덮인 산, 하얀 눈 내리는 겨울 산자락을 오르고 싶어 한다.

세월의 무게만큼 굽이진 소나무처럼 중년을 한참 넘겨버린 나는, 해매는 내 영혼과 가까이 있는 겨울 산, 하얀 눈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산에서는 목시의 언어들에 바람을 타고 말없이 속삭인다. 눈 쌓인 숲속

길을 뿌드득 뿌드득 소리와 함께 발자국을 남기며 걷다 보면 작은 산새들이 날갯짓을 하다가 쏜살같이 숨는다. 하얀 눈가루가 숲 바람에 날린다. 은빛 분말처럼 작게 스민 햇살이 빛난다. 눈이 부시다. 그 때 하얀 눈빛같이 눈부시게 빛을 받으며 나타나는 빛줄기, 하얀 천을 휘감은 의상으로 언뜻 스치며 소삭임처럼 들려주는 바람소리, 들릴 듯 말듯 숲속의 소리가 쉬 사라진다. 알 수 없는 숲길의 상념이었고, 느낌이었다. 그러나 뭔가 사랑의 손길이 닿은 마음은 평온하면서도 행복감이 젖어온다. 숲길을 걸어 내려오다 보니 노을빛 하늘이 서서히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해거름 골짜기를 타고 어느 산사에선가 목탁소리가 나직이 미끄러지듯 퍼져가고 있다. 이 산에 마음을 다시 비어 놓으라는 속삭임 같은 소리로 들려온다. 눈 쌓인 산은 휴식하는 생명들의 보금자리이다.

산에서 풍기는 따스한 체온으로 별거벗은 나무들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숲속 크고 작은 나무들의 온풍처럼 푸근히 감싸준다. 숲속에서 동면하는 동물들이나 작은

곤충들까지도 눈 덮인 산은 더할 나위 없이 삶의 안식처이다. 매섭고 추운 겨울에 깊은 잠에 빠진 생명들은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꿈 꾸어가고 있다. 동면하는 산은 침묵의 꿈을 안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온 젊은 엄마처럼 봄을 잉태한 채 산고의 진통을 이겨내며, 첫 생명인 봄은 온 산야에 화사한 꽃들을 만발하게 피울 것이다.

사랑스런 생명이 소생하는 황금빛 땅에, 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매화,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같은 아름다운 꽃들이 봄을 희망의 화신으로 우리 곁에 물고 올 것이다. 오는 봄은 힘든 삶속에 축 처진 우리네 가난한 마음마다 희망의 꽃망울을 활짝 터트릴 것이다. 산자락 끝에서 서서 나에게 다가오는 안식처 같은 평온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껴본다. 이제 계곡마다 얼음장 밀도로 흐르는 물줄기 따라 봄의 소리가 졸졸 줄 맑게 들려오고 있다. 🌸

김영채님은 ‘수필과 비평’(2011년) 수필로 등단하였고, 길상사 불교입문과정 제17기 수료하였다.

맑고 향기로운 원고를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 창작 문학(시, 시조, 수필)
- 카툰, 1면 만화
- 편지(사적인 편지는 제외)
- 기획 연재물
- 알찬소식 등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

■ 모집 안내

- 작품 및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본모임 사무국으로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투고자의 의향에 따라 연재물일 경우 원고료를 유·무상 구별합니다. 회원들의 단순 투고일 경우는 무상 투고를 전제하며, 원고 채택 시에는 귀중한 책 한 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보 낼 곳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사)맑고 향기롭게

이메일 : clean94@daum.net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설날 차례상에 올렸던 민족의 차

백산차 1월

백산차는 백두산에서 정기를 받고 자생하는 백산차잎만을 채취하여 전통방식으로 제다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차이다.

중국에서 조선의 장백산이란 백두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줄여서 ‘백산’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나는 석남과나 진달래과의 나뭇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 마신데서 유래 되었다.

‘백두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한국사람 모두는 몽클한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두산에 올라 그곳에 민족의 역사와 함께 숨 쉬고 있는 민족의 차(백산차)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백두산 지방의 토민이 차로 마시고 제사상에도 올렸다는 역사의 기록, 지금의 녹차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기 전인 삼국시대 이전에 백두산에 백산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음력 1월 1일은 조상에게 떡국과 차를 올리고 차례를 모시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다. 이날 차례 상에는 술 대신 차가 오른다 하여 ‘차례’ 지낸다는 말이 전해오기도 한다.

차례에 차를 올렸다는 역사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다. 그 책 ‘가락국기’편에 “서기 661년 신라 30대 법민왕께서 수로왕은 내 15대가 되므로 비록 나라는 망했다 해도 사당은 남았으니 제전을 받들되 당시의 제물과 똑같이 술, 단술, 떡, 밥, 차, 과일 여섯 가지 제수품을 올려서 제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수로왕 제사에 백산차가 올랐는지 녹차가 올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민족의 양대 명절인 설, 추석날 ‘차례 모신다’는 말과 함께 차를 올렸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차례 상에 올렸던 차가 바로 우리 민족의 차

백산차(白山茶)였음을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서 기록하고 있다.

“백두산에 있는 석남과의 식물로 바위의 깨끗한 곳에서 자라며 잎은 버들잎 같고 맛과 향기가 있어 제사에 쓰기 좋다. 그 잎을 말려 차의 대용으로도 썼다. 잎을 비비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해동역사海東繹史’를 보면 우리나라에 차가 수입되기 전부터 이미 백산차가 있었다.”

1975년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식물지’에는 ‘여름 꽃피는 시기에 꽃과 잎을 따 그늘에 말린 것을 차대용으로 사용한다. 꽃과 잎에서 기름을 뽑아 향료로 쓴다. 가지를 꺾어 방안이나 옷장에 두면 파리, 모기 등 벌레가 오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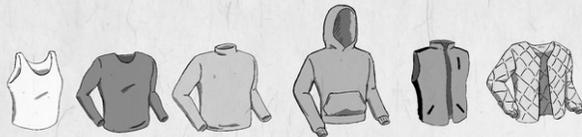
백두산 근처 만주 땅에서 오래 전부터 마셔온 진달래를 닮은 키 작은 나무이다. 꽃은 맑은 미색이고 잎은 초록빛이다. 그 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말렸다 뜨거운 물에 우리면 비취빛이 되고 연한 술 향과 박하향이 난다. 백산차는 해발 1,700~2,700m 고지의 백두산 원시림 속에서 자생하는 진달래과 늘 푸른 관목의 잎갈나무이다. 숲 속이나 습초지에서 잘 자란다. 한국과 중국, 일본 북부, 러시아(시베리아 극동부) 북미유럽에 자생한다. 백산차 잎모양은 버드나무 잎과 비슷하며 조선 향나무 내음이 난다. 



- 거름망이 있는 1인용 다기나 다관, 유리 주전자를 준비한다.
- 반드시 100도 이상 끓인 물로 한다.(사무실에서 정수기 물을 그냥 사용 할 경우, 차의 양을 조금 많이 하고 우려내는 시간을 늘린다.)
- 첫잔은 마시지 말고 30초(뜨거운 물이 통과할 정도로) 이내 우려서 버린다. (향이 강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은 버리지 말고 드세요.)
- 다음 잔부터는 첫잎이 물을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첫잎이 물에 담가진 상태에서 2~3번 흔든 뒤 우려낸 첫물을 따라 마신다. 시간을 늘려 가면서 차의 향과 맛을 즐긴다.
- 마시고나서 물기 없게 두었다가 7-8차례 다시 우려 마실 수 있다.
- 처음부터 첫잎을 많이 넣지 말고, 첫잎을 조금씩 더 넣어 가면서 차 맛을 느낀다.

산골패션

정태경



나의 산골 패션 겨울버전
위의 옷 등은 한꺼번에
입습니다. 하의도 비슷합니다
아! 이것은
실내용 패션입니다



서울모임

2011년 송년모임 보고

2011년 송년모임을 지난 12월 23일 오후 7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부로 2011년 사업 활동보고, 가결산 보고, 2012년 사업계획 보고 및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만남과 화합의 시간으로 모범 자원봉사자 감사패 시상, 이사장 스님과 회원들 간의 대화시간, 행운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이사장 덕운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의 화합과 각 지부의 화합 그리고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누었습니다.

* 2011년 모범봉사자 감사패 수상자:
남궁영식, 안덕명, 한광자

기부금 소득공제자료 2012년 발급 안내

지난 한 해 동안 본 모임에 정성껏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자료는 1월 10일경 우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재발행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모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지 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소득공제자료의 빠른 발송을 위해 업무보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중학생 이상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 일시: 2012년 1월 5일~7일 업무 보조 및 우편 작업(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식이웃 밑반찬 조리봉사자 모집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 2가지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총 지원가구 수는 390여 가구입니다.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쉼 없이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특히 남자 봉사자(성인, 단체 5인 이하 정도)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하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자신의 따뜻함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실 분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741-4696, 4697입니다.

1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 소식지 우편발송 / 1월 3일(화), 오전 10시~12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 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1월 5, 12, 19, 26일 / 금-1월 6, 13, 20, 27일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향기로운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 활동 / 1, 2, 3주 목요일(1월 5, 12, 19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1월 2, 9, 16, 30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1월 4, 18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셋째 일요일(1월 8, 15일) / 오전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정기모임 / 둘째 월요일(1월 9일), 오후 1시 30분 / 세계일화실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일요일(1월 8일)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월 8일) 오전 8시 20분 /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1월 4, 11, 18, 25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 / 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 / 선착순 7~8명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 / 격주 화, 금요일 의류재활용 리폼 / 세계일화실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부산모임(051-898-2672~3)

1월 부산모임 정기 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밀반찬 지원활동 / 매주 수요일 /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 매주 수요일 /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 매주 목요일 /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1, 3주 목요일 / 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 병동 목욕봉사 2, 4주 목요일 /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 매주 목요일 /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 매주 금요일 /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 매주 금요일 /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09:30~12:00
-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참선모임
-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참사랑노인건강센터

-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토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대구모임(053-753-8883)

1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 나누기 / 매주 수요일 / 11시 음식조리, 19시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시모집
- 소리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 7시(예정)
- 룸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케어, 빨래정리, 말벗)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운영위원회의 /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경남모임(055-266-0170)

1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수요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 활동 - 매월 넷째 화요일 오전 10~14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 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 / 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

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하세요 /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 / 사무국



광주모임(062-236-3129)

1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 2시 / 사무실



대전모임(042-823-0770)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여기는 길상사

<겨울방학 선수련회 일정 안내 >

지난 여름방학 선수련회의 추억을 되새기며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에서는 아름다운 설경 속에 또 다른 추억을 남기고자 겨울방학 선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중고등부 수련회 : 2012년 1월 2일~4일 (2박3일)
- 초등부 수련회 : 2012년 1월 6일~8일 (2박3일)
- 동참금 : 6만원
- 신청 및 접수 : 길상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www.kilsangsa.or.kr)
- 문의 :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중무실 02-3672-5945

<시민선방 철야정전 >

매월 둘째 주에 아래와 같이 철야정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정 : 1월 14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 동참금 :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 간식으로 죽 공양합니다.

<다라니 기도 >

- 일정 : 1월 7일(오후 7시~9시)
- 염송다라니 :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삼천매 철야정전 >

- 일정 : 1월 14일 (오후 8시 30분~다음날 오전 4시)
- 장소 : 설법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 동참금 :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죽/과일 간식 제공)
- 주의사항 : 반드시 좌복보호대를 깔고 수행에 임하세요.

<정초기도 >

- 일정 : 2012년 1월 25일~2월 3일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3만원

<1월 주말 선수련회 >

- 일정 : 1월 셋째 주말 21일은 설 연휴 관계로 취소됨

1월 넷째 주말 28일(토)~29일(일)

- 대상:종교에 상관없이 참선수련 경험 유無 무관
- 참가비: 5만원(입금순 50명 마감)
- 접수: 길상사 홈페이지
(문의: 교무실 02-3672-0036)

< 설날 합동차례 >

조상님들의 음덕을 기리는 설 명절 날 합동차례를 봉행합니다.

- 일정: 2012년 1월 23일(설날)
오전 9시 50분
- 장소: 설법전
- 동참금: 5만원

< 경전반 ‘달마 혈맥론’ 개강 안내 >

- 개강: 2012년 1월 31일
- 종강: 2012년 4월 17일
- 장소: 설법전(매주 화요일 2시)
- 법사스님: 일수스님(법천사 주지)
- 참가비: 7만원(교재비 포함)

<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은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길상사 신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길상사 기도, 행사 일정을 SMS 문자로 발송 드려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하

오니 최근 자택전화나 핸드폰 번호가 바뀌신 길상사 신도님들께서는 종무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보살행을 실천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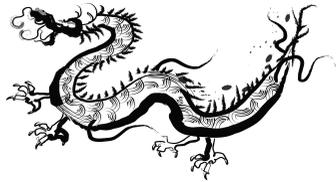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에서는 각 신행 단체별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 행을 실천하시는데 관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주저 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실 신행단체는 거사림회, 보현회, 문수회, 관음회, 지장회, 보리회, 청년회, 천수회, 합창단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길상사와 인연공덕 지으시고 성불하십시오.

< 공지사항 >

- ※ 인등 내리실 분은 길상사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종무소 ☎(02)3672-5945~6)



<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신정 합동차례	1월 1일	9시 50분	극락전
겨울 선수련회(중고등부)	1월 2일~4일	오후 2시 입방	설법전
겨울 선수련회(초등부)	1월 6일~8일	오후 2시 입방	설법전
다라니기도	1월 7일	오후 7시~9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월 14일	오후 8시 30분~새벽 4시	설법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1월 14일	오후 9시~새벽 4시	길상선원
지장재일 기도	1월 11일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1월 17일	9시 50분	극락전
설날 합동차례	1월 23일	11시 0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1월 23일	9시 50분	극락전
정초기도	1월 25일~2월 3일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9시 50분,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9시 50분, 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소강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외로운 이들, 결식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2년 임진년에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시길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